

2019년도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9. 9. 20(금) 15:00
- 회의장소 : 아창제 사무국 회의실

2019년도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24작품으로, 초연부문 16작품, 재연부문 8작품이다. 아창제를 매개로 국악관현악에 대한 작곡가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가는 것을 환영 한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에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출품작품들 중에서 신선하고 이색적인 작품들이 있어 눈에 띄었다. 창의성이 강조된 작품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했는가를 고려하였다. 또한 작품으로서 완결성을 갖추어야 실험적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작곡가들이 좀더 국악기에 대하여 깊이 탐구하기를 바란다’ 는 소감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한국 전통의 탄탄한 기반 위에 현시대적 음악어법을 접목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경향이 짙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국악관현악 기법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희망한다는 데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심사위원들은 기획연주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성격을 지니며 작품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연주시 효과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는 곡으로 선정하였다.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